

民間主導로 1,000億弗 時代를

參席者 (業体名 가나다 順)

金 應 鎮 (高麗大學校 電子工學科 教授)
黃 性 博 (大亞리드선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又 永 (株式會社三寶컴퓨터 常務)
孫 郁 (三星電機 株式會社 常務)
金 鍾 燮 (中原電子株式會社 代表理事)
李 弘 夫 (韓國電子工業振興會 業務理事)
朴 在 麟 (韓國電子工業振興會 情報産業部長)

日時 : 1987년 12월 18일 (金) 12:00

場所 : 萬寶莊 2層 桃采室

李弘夫 :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電子産業이 금년 들어 100億弗 輸出이라는 大業을 달성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急變하고 있는 내외의 産業環境 속에서도 電子産業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政府의 끊임없는 育成, 支援이 조화를 이루어 결실을 맺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지속적인 發展을 이루어 1972년에 1억弗 輸出, 1976년에는 10억弗 輸出 그리고 금년에는 100억弗을 이룩하여 실로 15년만에 輸出伸張 100배라는, 世界的으로도 유례가 없는 경이적인 發展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電子産業 100億弗 輸出을 祝賀하는 意味보다는 100億弗

時代가 지니고 있는 意味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 과정에서 惹起되었던 문제점과 앞으로의 課題와 對策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 검토 하므로써 向後 우리 業界가 나아가야 할 道과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좌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本會의 朴在麟 部長의 電子産業 100億弗 輸出 達成에 대한 概略的인 報告를 듣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在麟 :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100億弗 輸出 達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연도별 輸出 実績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960年代에 金星社의 라디오 생산으로 본격적인 電子産業이 개시된 이래 1972년에 1억弗 輸出을 이루었고 그후 4年 뒤인 1976년에는 10億弗 輸出로 10



배 伸張을 보였으며 今年, 1987년에는 待望의 100억弗 輸出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1억弗 時代(~1972年)에서 100억弗 時代(~1987年)까지의 部門別 연평균 성장률로 살펴보면 産業用 機器가 51.1%로 급속한 伸張을 보였고 家庭用 機器는 39.1%, 電子部品은 27.9%의 伸張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輸出 100억弗 時代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世界的으로도 제 6위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世界 電子製品 輸出에 대한 比重도 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輸出 成長 배경 및 요인으로는 '80年代 유망상품의 戰略的 開發, 施設投資의 확대, 技術 開發 및 제품의 高級化 그리고 電子産業의 전반적인 國際化가 활발히 이루어진 데 힘입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앞으로의 展望을 해본다면 컴퓨터 및 周邊機器, 通信機器, 기타 産業用 機器, 電子部品 등이 주요 수출 有望商品으로 떠올라 1992년에는 250억弗의 輸出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이 처한 当面課題로는 先進國의 각종 輸入規制와 通商摩擦을 여하히 대처해 나아가느냐 하는 問題와 部品 素材

의 供給률이 저조하고 尙日 무역역조 현상이 深化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輸出商品의 구조적 취약성과 新規 전략상품의 開發이 늦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內需 기반의 미비성과 円高 및 원貨 切上으로 인한 業界의 二重苦, 先進國의 知的所有權 강화 등 앞으로의 対策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李弘夫: 우리나라 電子産業 100억弗 輸出 達成에 대한 報告를 개략적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産業 一線에 몸 담으시면서 느끼신 電子産業 100억弗 輸出에 대한 전반적인 評價를 三星電機의 孫 郁 常務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 郁: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振興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100억弗 輸出이 지니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電子産業 高度化計劃을 추진하면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970年代末의 컬러TV 放映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80년에 실시

된 컬러TV 放映이 갖는 의미는 실질적인 電子産業의 成長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代表的인 例를 台灣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1970年代初까지 우리나라와 台灣은 電子工業의 규모나 輸出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70年代 中반에 台灣이 컬러TV를 放映하고 난 후로는 兩國간의 電子産業의 차이는 현격히 벌어졌던 것이 事實입니다. 이렇듯 電子産業에 있어서의 컬러TV放映 문제는 發展의 원동력을 否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 100억弗 輸出은 1980년부터 시작된 컬러TV放映으로 일기 시작한 相關産業의 育成 및 活性化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電子産業의 100억弗 輸出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造成하였다고 봅니다.

李弘夫: 이번에는 실제로 企業을 經營하시면서 느끼신 점, 특히 電子産業 100억弗 輸出 時대를 맞이하면서 企業 經營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中原電子의 金鍾燮 社長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燮: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아직도 勞動集約的인 産業이라 할 수 있습니다. 生産성과 品質면에서 日本에 비해 뒤진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今年 3/4分期에 전국을 휩쓸었던 勞使 분규로 말미암아 生産 코스트의 상승은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勞動集約的 産業을 지탱해 준 低賃金 시대에서 이제는 高賃金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전에 日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것이 中共에서 만든 Sanyo 브랜드의 워크 맨이었습니다. 물론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리 製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만 앞으로의 추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즉 中共을 비롯하여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後發開途國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勞動集約的 産業에서의 추격으로 우리의 위치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100억弗 輸出을 계기로 勞動集約型에서 탈피하여 技術集約型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製品의 高附加價值化를 이루어 앞으로 다가올 高賃金시대를 대처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黃性博: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이 급격한 發展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며 더불어 저회 会社도 같은 맥락의 成長을 이루어 왔다고 봅니다. 草創期에 비해 工場 면적은 5,000배, 生産量은 10,000배에 이르는 급성장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물론 오늘의 電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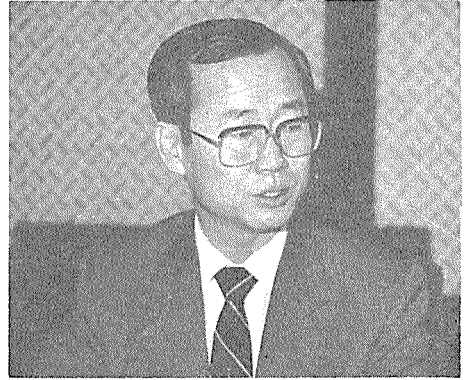


“100억불 수출이란 대업을 성취한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민간주도형으로의 체질개선을 이루어야 하며 세계의 산업 정보 확보, 연구 및 기술개발 체제확립,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하여 선진 산업국으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金 惠 鎮 教授

“전자산업은 전자, 화공, 물리, 금속 등의 복합 첨단산업이므로 전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초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육성책이 뒤따라야 앞으로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黃 性 博 社 長



産業 100억弗 輸出 時代를 맞이하기까지에는 政府와 學界 그리고 業界에 관련된 모든 分들이 兢주하신 작고의 노력의 結實이라고 생각합니 다. 初期의 거의 全無하다시피 했던 기술의 公 백은 外國의 技術을 導入할 수밖에 없었으며 資 本 역시 外資에 의존했던 것도 사실입니 다. 그러나 電子業界에 종사한 경영인, 중간 간부, 종 업원들은 좌절하지 않고 일치 단결하여 惡條件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여 오늘의 電子產 業 100억弗 輸出을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過程에서 또 앞으로의 問題點은 山 積해 있습니다. 先進國의 輸入規制와 円高 그 리고 知的所有權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對外的인 課題와 技術 開發, 원貨 切上, 輸出入 多辺化 등의 對內的인 課題를 잘 해결해 나야 가야 할 것입니 다. 특히 電子輸出 100억弗 時代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 나가야 '88年의 130억弗, '92年의 250억弗 등 지속적인 成長을 加速化시 켤 수 있다고 봅니다.

金又永 : 우리나라의 電子產業이 100억弗 輸出 高地에 올라섰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고 하겠습니 다. 특히 最近 5년 사이의 컴퓨터 產業은 팔목할 만한 成長을 이루어 왔다고 보 니다.

電子產業의 10大 主宗品目 中 컴퓨터가 차지 하는 비중은 16%가 넘고 있으며 퍼스널 컴퓨

터의 生産은 세계에서 7위 的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컴퓨터 供給基地化가 된 것도 '85年부터 일기 시작한 円高로 外國의 生産 體制 Shift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은 外國의 生産技術과 우리나라의 低賃金의 結 合으로 이루어 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반 여건의 조성으로 우리나라의 컴퓨터產業은 '80 年의 600만弗 輸出에서 '86年에는 7억 700만弗 이라는, 증가율에서 보면 118배라는 경이적인 新장률을 기록하였던 것입니 다.

李弘夫 : 지금까지는 業界에 제신 네분의 말 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高麗大의 金 惠鎮 教授께서 電子產業 100억弗 輸出 時代를 맞이하면서 그간 소홀했던 면과 아쉬웠던 점들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惠鎮 : 우리나라 電子產業의 背景을 먼저 살 펴보고 發展과정에서 노출되었던 問題點들을 간 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電子產業은 당초 政府의 輸出戰 略化 産業 施策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 다. 당시 美國의 콜럼비아大學의 金玩熙 博士의 보고 서(一名, 金玩熙 Report)를 상기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韓國의 產 業環境 여건은 電子產業의 최적지이며 5년 이 내에 2억 5,000만弗의 輸出이 可能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의 강력하고 세부적인 추진에 힘입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30년이 채 못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成長에 成長을 거듭하여 오늘의 100억弗 輸出 時代를 開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大學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電子産業의 成長 要因을 살펴본다면 첫째로는 政府의 지속적인 育成 政策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政府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했기 때문에 民間 주도가 아닌 官 주도형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教育水準과 勤勉性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노동집약적인 보세가공 위주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는 '80年代에 들어서서 국제적으로 불기 시작한 3低 현상을 빼놓을 수 없는 要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成長要因에도 불구하고 看過할 수 없는 문제점은 電子産業은 尖端技術産業이라는 것입니다. 즉 尖端技術에 대한 自体의 研究開發보다는 先進 外國技術을 導入하여 왔기 때문에 일정한 水準의 技術蓄積이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産業의 成長과 技術의 고도화가 병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야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電子産業 100억弗 輸出의 背景과 成長要因 그리고 問題點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弘夫: 지금까지는 業界와 學界에 계신분들의 意見을 들어 보았읍니다만 振興會의 朴在麟 部長도 간략히 電子産業 100억弗 輸出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麟: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을 時期別로 發展형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初期 단계인 1960年代는 市場, 資本, 技術의 不毛地에서 外國의 技術, 外國의 資本, 外國의 市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반인 1970年代에는 '60年代末의 電子工業振興法의 制定이 나름대로의 國內需要 차원에서 企業人에게 용기를 심어준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80年代의 政府의 技術先導 위주의 政策이 예상한대로 적중되어 오늘의 電子輸出 100억弗이라는 大業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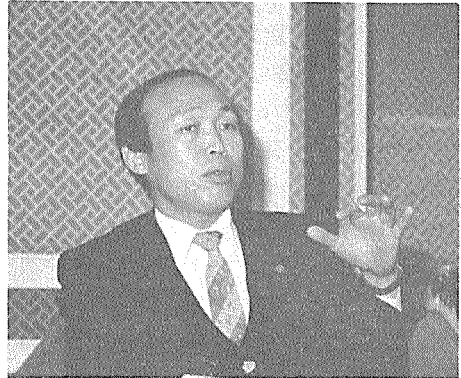
李弘夫: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電子産業이 100억弗 輸出을 이룬 현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成長



“전자산업의 급성장 중에서도 컴퓨터산업은 경이적인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내장되는 주요 부품·소재 등은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기초 부품·소재의 국산화야말로 내실화의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金 又 永 常務

“저임금시대에서 고임금시대로 변해가는 오늘날의 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업계는 생산관리, 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생산기술력 증대에 적극 힘써 자생적인 발전을 성취해야 하며 이로써 선진국과의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孫 郁 常務

속도는 더욱 加速化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내년인 1988년에는 200억弗의 生産, 130억弗의 輸出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반이 확고히 되어 간다면 앞으로는 우리 電子産業이 가장 취약한 部品·素材産業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앞으로의 進路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又永：우리나라가 컴퓨터産業의 供給基地化되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우리보다 더 저렴한 노동력으로 武装한 後發 開途國의 추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한 後發 國家들이 技術蓄積이 이루어지는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컴퓨터産業은 斜陽産業化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實情은 컴퓨터에 내장되는 Chip중 첨단기술의 Chip은 대부분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部品·素材의 國産化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生産技術을 축적하여 競爭力을 提高시켜야 하겠습니다.

孫 郁：현재 電子産業의 수출구조를 보면 主宗品目들이 컬러TV, VTR, 電子렌지 등의 大量生産 체제로 大企業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여기서 파급되어 部品·素材産業의 형성 계기

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大企業의 역할이 클 수 있었던 것도 政府의 輸出産業 戰略化 정책의 유지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임금 노동력 확보와 정책적인 배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時代에서 고임금 時代로의 변환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先進國과의 競争으로 앞으로의 進路는 尖端技術과 生産応用技術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과의 경쟁은 가격 경쟁에서 기능, 품질, 디자인 등의 비가격 경쟁으로 변할 것이고 따라서 生産管理, 自動化, 品質管理 등의 生産技術을 지향하여 生産技術力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部品·素材産業을 강화하여 現在까지 이어져 온 官 주도형 산업구조에서 民間 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체질변환을 이루어 業界의 自生的인 發展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黃性博：電子産業은 電子뿐만 아니라 化工, 物理, 金屬 등의 복합적인 産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電子産業이 發展하려면 全産業의 균형적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기초분야인 部品·素材의 國産化 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部品·素材의 自給率을 살펴보면 '80년의 55%에서 '84년에는 60%로 상승하였으나 '85년 이후에는 円高로 인하여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實態입니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部品·素材의 尙日 수입의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尙日 逆調를 深化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部品·素材産業의 國産化 開發은 무엇보다도 絶실하고도 막중한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金鍾燮：部品·素材의 國産化 開發은 실로 重大大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품의 경쟁력인 品質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면 원가절감이라는 차원에서 Item 분할이라는 二元化 구매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만 즉, 일부 품목은 國産化 製品을 또 다른 품목은 輸入製品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國産化해야 할 部品·素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部品·素材産業이 發展해야 Set業界도 병행 발전할 수 있으며 복합기술 상품이란 차원에서 産学 協력이 활성화되어 自體의 技術 開發로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와 後發 개도국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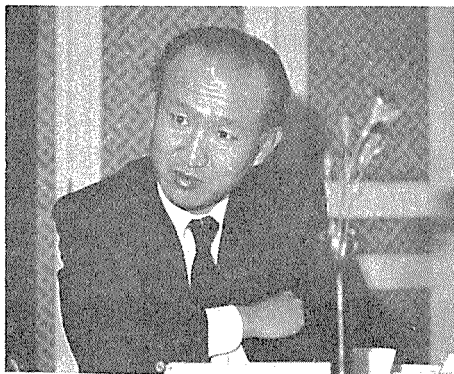
李弘夫：中原電子の 金鍾燮 社長께서 産·学 協力を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技術 開發이나 人材育成이라는 次元에서 産学 協力は 重要시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金惠鎭 教授

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惠鎭：産学 協力を 포함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이 100억弗 輸出을 기반으로 '88년에는 生産 200억弗, 輸出 130억弗에 이른다고 전제했을 때 우리도 이제는 개발도상국형에서 선진국형의 체제로 변환되어야 하므로 産業構造의 體質改善이 絶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觀點이 있겠으나 우선 첫째로 民間주도형으로의 변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業體의 發展·生産·輸出·企劃 등의 제반 계획이 民間차원에서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業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건의 등의 중계 역할을 振興會에서 활발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世界의 電子情報 즉 世界市場과 尖端 技術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히 수집, 홍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振興會 차원에서 刊行物을 통한 情報 伝達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Data Base化에 따른 情報시스템 활용이라 하겠습니다.

셋째로 部品·素材 및 技術 開發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先進國의 보호주의 장벽은 날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國內 業界 自力으로 技術 開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産学 協력이 絶실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業界의 研究 活動이 전제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資本과 施設



金 鍾 燮 社長

“100억불 수출을 이룬 전자산업이 아직도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의 선진국과의 경쟁과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하루빨리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전자산업 100억불 수출은 앞으로의 500억 불, 1,000억불 수출을 위한 기반 조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선진국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업계·정부·학계가 혼연일치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李 弘 夫 理事



그리고 人力 등이 필요한 研究活動에서는 대기업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으나, 중소기업측에서는 물론 企業 附設研究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활동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大學 研究所나 政府 出捐 研究機關과의 協力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째로 製品의 高附加價值化입니다. '60年代의 보세가공에서 出發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70年代에 일부 品目의 高級化를 시도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그 세력은 미미하고 또한 家電産業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家電製品의 고부가가치화와 高度技術을 요하는 産業用 機器로 집중 투자하여 國際市場에서의 劣勢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政府의 각종 지원육성책입니다. 政府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 정책과 生産과 消費를 억제하였던 수출주도형의 特別消費稅의 대폭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世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굳건한 위치를 확보하리라고 믿습니다.

李弘夫 :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이 오늘의 大業을 이루기까지에는 선진국의 각종 수입 규제와 지적소유권 등의 통상마찰 또한 큰 장애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地域的으로도 최근들어서 유럽에까지 넓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國內 業界의

生産能力이 量産体制로 발전될수록 통상마찰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孫郁 常務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 郁 : 지금 말씀하신 通商摩擦의 해소책으로 政府의 通商外交의 노력도 중요하고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자리에서는 業界 自体의 통상문제 해소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自由貿易主義의 원칙하에서는 이론상 유발되지도 않을 문제이겠으나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이상, 이러한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業界의 자발적인 대처가 주요하다고 봅니다. 즉 통상마찰의 주요인을 수입국에서의 불만 누적에 들 때 業界의 現地 生産体制로의 移轉을 통한 企業의 多国籍化만이 통상마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國內 業界에서도 系列化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日本의 경우는 심지어 資本까지도 系列化가 되어 있어 연대책임 의식을 갖고 공동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價格 경쟁 위주의 量的인 면에서 탈피하여 品質 競爭力을 한층 높여 質的인 면에 치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業界의 자발적인 분위기가 造成되어 業体간의 協力体制를 구축하여 날로 深化되어 가는 通商問題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60년대의 외국 의존형, '70년대의 국내수요 조성, '80년대의 기술선도 위주의 정책 실현 등을 통하여 오늘의 100억불 수출을 이룩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제들도 관·산·학의 유기적인 대처로 가능할 것입니다.”

朴 在 麟 部長

고 생각합니다.

李弘夫：막상 100억弗의 高地를 넘어서고 보니 웬지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벌써부터 유럽과 美国 쪽에서의 通商 압력이 加重되고 있는데, 새해에는 더 많은 마찰이 제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에도 業界 여러분의 열성과 刻苦의 노력이 얼마나 지대하였는가는 재삼 거론할 나위조차 없이 중요하였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계 3, 4위의 電子産業國으로서 성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비약의

문턱에 다다라 있습니다. 오로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 先進 대열에 서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미 中共도 만만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台灣,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국 역시 電子産業의 育成에 死活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電子産業은 待望의 90年代를 향해 業界는 물론 政府와 學界의 舍心全力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成長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業界 여러분의 노고와 偉業에 치하를 드리며 500억弗, 1,000억弗의 달성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